첨부 3

AI 초안 검토·수정 기록

AI 활용 사례 공모전 시즌3 · 업무 생산성 개선
회사·인명·수치·성분·금액은 모두 가렸습니다

AI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분석·판단·책임까지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I 초안을 검토·수정한 곳**과 **사람(고객)이 판단한 곳**을 따로 기록했습니다. 사실이 틀린 경우만이 아니라, 맥락이나 대외 원칙에 맞지 않아 고친 경우도 함께 적었습니다. 아래는 실제 기록에서 고유명사를 가려 옮긴 것입니다.

가. AI 초안을 검토·수정한 기록

AI 초안	제가 고친 것	이유 구분	이유
배너 표기 「未コーティング」(코팅 하지 않음)	「未塗装」(도장하지 않음)으로 통일	용어 일관성	현장 통역에서 쓰는 말과 인쇄물의 말이 같아야 방문자가 헷갈리지 않음
일본 소재 기업의 회신을 구매 문의로 해석	협력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려는 신호로 다시 해석	맥락 해석	일본 기업의 문의 관행
일본 시장 점유율을 「국내 1위」로 표기	「일본 내」로 정정	사실 확인	사실 관계 — 어느 시장 기준인지 분명히
화학물질 관련 질의에 묻지 않은 정보까지 담은 답변	묻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는 원칙으로 삭제	정보 공개 원칙	정보는 협상 카드. 먼저 꺼낼 이유가 없음
원천징수 관련 질문을 단정적으로 작성	상대가 스스로 답할 여지를 두는 정중한 표현으로 수정	대외 표현 원칙	단언을 피하고 상대 반응을 먼저 듣는 대외 원칙

나. 판단은 고객의 몫 — 짚고, 확인할 곳으로 넘긴 기록

저는 위험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려면 누구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가」를 짚고, 결정은 고객이 합니다. 고객이 다르게 판단한 경우도 그대로 남겼습니다(개입 기록 22건 중 4건).

상황	제가 짚은 것	고객의 결정	결과
기존 자료의 시험기관 소개	「공인 시험기관」이라는 표현이 성적서 원본 비고란과 맞지 않음 → 「제3자 시험기관」으로, 원본은 요청한 기업에만 따로 제공 제안	대표님 동의. 새로 만드는 자료부터 적용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
메시지 정리	주력 기능에 집중하도록 보조 기능 표현을 정리하자고 제안	대표님이 보조 기능을 지우지 않고 「보조 메시지」로 짧게 남기는 방식을 직접 정함	고객이 다르게 판단
지급 일정	금액을 먼저 보여 드리고 지급 방식 두 가지를 제시	대표님이 두 안보다 나은 제3의 방법을 직접 고름	고객이 더 나은 결정
소재 정보 공개 범위	대외 문서는 나중에 분쟁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특허 확인 전까지 언급 보류 제안, 특허 확인 여부 질문	의견 차이는 남았지만, 대표님이 같은 날 담당 변리사에게 확인 의뢰	이견 → 전문가 확인
상사의 원료 공급 제안	원료 공급은 정보 노출과 단계가 맞지 않음 → 판로 파트너로 다시 정의 제안	대표님 동의. 대표님 문구 「여러 기업에 샘플 제공」은 과장 우려로 「평가 진행·준비 중」으로 조정	기회를 다시 설계

다. 무거운 질문은 두 AI에 따로 묻고, 사람이 합쳤습니다

방법
판단이 무거운 질문(예: 특허 검토를 어디에 맡길지)은 Claude와 ChatGPT에 **서로 모르게** 같은 조사를 맡겼습니다. 결과를 「일치 / 다름 / 둘 다 확인 못 함」으로 나누고 결론은 제가 냈습니다.

실제 예
두 AI 모두 「출원을 맡은 사무소에 검토를 맡기는 것 자체는 이해 충돌이 아니다」로 일치. 한쪽만 짚은 중요한 지적(제품 용도 단어가 없는 특허도 범위에 넣어야 함)은 통합 결론에 반영. 최종 판단은 변리사에게 연결.

출처: 개입 기록(22건), 모델 케이스 기록, 두 AI 조사 통합 검토 문서. 실제 회사명·인명·제품명·수치는 출품을 위해 가렸습니다.